

폐이식후 합병된 거부반응시 병리조직학적 소견과 혈중 Nitric oxide의 상관관계

이화의대 목동병원 흉부외과, 연세의대 영동병원 흉부외과^a

박영식 · 김해균^a

간장이나 심장등의 장기이식후에 거부반응이 일어나면, 혈중 Nitric oxide가 증가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. 폐이식후에 일어나는 거부반응때도 혈중 Nitric oxide가 상승하리라고 예상되지만, 아직까지 정확한 보고는 드문 편이다. 본연구는 폐 이식후의 거부반응시에 1) 혈중 Nitric oxide가 상승되는지를 확인하고, 2) 그 혈중 농도가 거부반응의 병리조직학적 등급과 상관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획되었다.

황견에서 일측 폐의 동종 폐이식을 시행한 뒤, 수술 직후부터 면역억제제를 투여하였다. 제1군(면역억제제군; 황견 4마리)은 정상적으로 면역억제제의 투여를 계속하여 대조군으로 삼았다. 제2군은(거부반응군; 황견 15마리)은 수술후 5일부터 면역억제제의 투여를 중단하여 급성 거부반응을 유도시켰다. 혈중 Nitric oxide는 수술전과 수술후 9일에 각군에서 각각 측정하였다. 수술후 9일에 실험견을 희생시켜 병리조직학적 검사를 시행하여 거부반응을 Grade 0-4로 분류하였다. 제2군(거부반응군)에서 수술후 9일의 혈중 Nitric oxide와 병리조직학적 등급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.

제2군(거부반응군)에서 수술후 9일의 혈중 Nitric oxide가, 수술전과 제1군(면역억제제군)에 비하여 의의 있게 증가되었다(12.28 ± 2.10 vs 6.46 ± 0.5 , 7.25 ± 0.51 uM/L; $p < 0.05$) (Fig 1). 그러나 제2군에서 수술후 9일의 Nitric oxide는 병리조직학적 등급과 상관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($r = -0.2094$; $p > 0.05$) (Fig 2).